

★ 여성주의매체
앨리스 두번째 이야기

앨리스

기획특집 - 가족비화



★ 여성주의매체
앨리스 두번째 이야기

앨리스

*

기획특집 - 가족비화



13대 앨리스 ACTs 총어학생회



★기획특집 _가족비화

가족이라
가족에 대한 단상
아름

엄마의 일상

엄마에게 여유로움은 사치???

엄마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기

나는야 나쁜딸

결혼, 그거 꼭 해야 돼?

가족비화

가족이라..

도대체 가족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니.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못쓰겠어.
쓰다보니깐 내가 완전 나쁜 애 같잖아.
괜히 우울해져서 못쓰겠다.

가족이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가족에 대해 쓰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가족이라 하면 신성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은 모두 정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듯.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을 것이라
감먹기.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음. 생각보자기로 싸고 또 싸고 감싸고 또
감싸서 공중 뭉어두고
도무지 꺼내려 하지 않는걸.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게지.
모두가 꼭꼭 싸매고 꺼내지 않던 것들.
그것이 단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본다.
지금 이 시작으로
그동안 꼭꼭 눈과 귀와 입을 모두 닫고 있던 사람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신문지로 꼭꼭 싸맨다
풀어지지 않게 끈으로 잘 묶어 뒤편에
자칫 냄새라도 새나가면 큰일이거든
누군가 알아채기라도 하는 날이면 정말

끔찍해

조금만 꺼내보면
금방 알게 될 걸
금방 공감하게 될 걸
생각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거든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

가족 감히 범하지 못할 그 신성한 이름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살짝 열어보자

가족에 대한 단상

JANETZ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정체라 불리는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이다. 적어도 성인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편견 혹은 강박관념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선택을 강요 받는다. (물론 예외가 있는 법, 서로가 절실히 원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비주류이니까 그들은 제외시키기로 하자.) 또한,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sex)이 달라야 하는 것과 적어도 자식 중에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되며, 이를 제외한 부부가 동성인 가정, 한 부모 가정, 비 혈연중심 가정은 비정상, 비주류로 사회에 의해 나뉘어진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알지만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갖고 싶다 아니면 혼자 살아야겠다? 딱 어느 한가지가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려는 것이니까 말이다.

SHINAZIP.COM

아픔

꼬마

"엄마 생각은 어때? 응?"
"글썸.. 아빠한테 물어봐."
"아니!! 아빠생각 말고 엄마생각 말야!! 엄마생각은 어땠데?"
"아빠한테 물어보라니깐.."
"아빠생각은 이따가 아빠한테 물어볼 테니깐 엄마 생각을 말해보라고!!"
"....."
"응?? 엄마는 생각 없어?! 응??"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엄마에게 다그치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침묵 뒤에는
엄마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환경이 있다는 것
엄마의 생각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 속에서 엄마도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 텐데

AM 05:30 잠에서 깨기,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아침
 밥상 준비
 AM 07:00 출근할 남편과 학교에 갈 아이들 깨우기
 AM 08:00 밥상 대충 치우고 운동하러 가기
 AM 10:00 집에 돌아와서 청소·빨래하기
 AM 12:00 점심 식사
 PM 01:00 공과금 등을 내기 위해 은행에 가고,
 아이들 옷과 남편 옷을 사러 잠시 쇼핑
 PM 03:00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 간식 준비.
 PM 04:00 아이와 함께 공부.
 PM 05:00 저녁 식사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가기,
 저녁 식사 준비
 PM 07:00 설거지, 아이들에게 씻으라고 재촉하기
 PM 08:00 드라마 보면서 한숨 돌리기
 PM 10:00 아이들 내일 학교 갈 준비물·숙제 확인
 AM 02:00 잠자리에 들기.
 그리고.. 일상의 반복

어렸을 적에,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결혼 후, 직장을
 가지고 싶었지만 아빠의 반대로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나와 내 동생들을 낳아 기르면서 자신만의
 삶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각자의 일은 알아서 하는 지금, 직장을
 가지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나눠주는 개인신상정보를 적게
 하는 종이에서 엄마의 직업은 늘 "주부"였다.
 그리고 그때는 매일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늘 집에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엄마의 세월을, 시간을 다
 값아 먹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엄마의 일

신치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아빠가 직장을 잃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던 끝에 열게 된 자그마한 음식점은 무미건조하던 엄마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다. 비록 하루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이긴
 하지만 말이다. 가게를 하면서 예전보다 더 늦게 자면서 피곤해 하시긴
 했지만, 엄마만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주체가 되어서 더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아마 어렸을적 엄마의 모습은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18,19,20세기 그리고 현재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가정들에서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녀들은 결혼 생활과 함께,

특히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녀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 여유를 가지기가
 힘들다. 옷을 살 때에도 늘 아이들 옷, 남편의 옷을 챙기기 바쁘고, 집안에서
 보살핌의 의무를 가지는 것은 늘 그녀들이다. 직장에서 열 받은 남편
 비위를 맞춰 주어야 하고, 학교에서 열 받은 아이들 달래줘야 하고 말이다.
 늘 아이들과 남편에 치여 사는 그녀들. 그녀들은 모두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늘 사랑과 봉사만을 여성에게 강조하는 이 사회의
 희생자이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제, 결혼하면
 남편 호적에 입적하여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가족 안에서 모든 권력의
 핵심이 되는 이런 환경들이 그녀들에게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녀들은 경제활동을 결혼과 함께 접음으로써 더욱더
 가정 내의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다.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또한 그녀들을 한번 더 움츠려 들게 한다.

이제는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일방적인 봉사와 희생, 남편에 대한 존중 등은
 없어져야 한다. 직장을 가진 여성 역시도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만들게 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남편들도 "일" 해야한다.
 집안일을 말이다!! "나는 돈벌어오는데, 집안일이나 하는 니가 할말이 있나
 ??" 라는 식의 사고를 할 수 없게 가사노동도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가족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엄마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눈을 붙일 때까지 여유로움을
잇고 산다. 엄마에게 여유로움이란 사치 같다. 우리 집은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근처에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작은아빠가
결혼하시곤부터 우리엄마의 여유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아빠가 결혼하고 얼마 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길러지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아빠의 찬성으로 아이는 매일매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그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시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가게일도 바쁘지만 아이도 돌봐야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할머니도 엄마도 기운이 많이 떨어지셨고, 엄마는
둘째를 돌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셨다. 하지만 결국 둘째도
우리 집에서 보게 되었고, 나이드신 할머니는 더욱 힘겨워하셨다.
때문에 몸살이 나가지질 않으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더
오랫동안 돌봐야했기에 엄마 또한 많이 힘들어하셨다.
아니 힘들어하신다.

지금은 아빠가 회사에 다니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시지
않으셨기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도 할아버지도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할머니와 엄마에게 떠넘기기에
바빴다. 가끔 작은엄마가 휴일에 다른 일로 나가시면 작은아빠는
아이들을 우리 집에 맡겨버린다.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도 힘드니까
우리 집에 맡겨버리는 거다.

엄마는 아침엔 아빠회사 출근시키고 가게 내려갈 준비를 하신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과 씨름(가게특성상 엄마는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한다)을 하며 밤에 가게를 닫고 나면 집안정리를 해야 하신다. 정말
끝없는 노동의 노동을 하시는 거다.

가게일로 인해 손마디마디가 아프셔서 이제는 가게도 하기 싫다고
하시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플 뿐이다. 나도 아빠도 다른 가족들도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리라

엄마에게 여유로움은 사치???

이기적인 딸

by

무능력한 딸은 말을 먹고
자꾸 소심해지는 한 여성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내 화가 중요한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딸은 화를 내고
그 화에 한 여성은 '응 그래'라는 말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한 여성의 심리를
나는 흡수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쁘고
뭐가 그리 아프다고
자꾸 반사해내는지
내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그 아픔 앞에선 기꺼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걸

생존을 위해 엄마를 잡던 갓난아기
불과 20년 후
그 관계의 완전한 역전
내 길을 가겠다는 딸
한번도 자신의 길을 꿈꿔보지 못한 한 여성

이기적인 딸은 햇빛을 보며 늘 껍찬 당당함으로 무장을 하는데
한 평생 이기적이지 못했던 한 여성은 자꾸 초승달이 되어 만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가정폭력

친구랑 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가족" 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기

어렸을 적,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잠을 자다가 큰소리에 깬다. 아빠가 엄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엄청난 싸움이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와 아빠는 행동했다. 그리고 여러번 내가 잠자는 척 하는 동안 부모님의 다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처음으로 내 앞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 큰소리를 내다가 결국엔 아빠가 엄마에게 손지검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아빠의 엄마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나의 증오심도 아빠의 폭력성과 함께 커지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그날도 엄마와 아빠가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빠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엄마의 머리채를 끌고, 그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엄청난 욕들을 해대기 시작했다. 또 다시 엄청난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해 버렸다.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한쪽편에 서서 그 엄청난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 대던 내가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싸우고 있는 부모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괴성을 질렀다. "싸우려거든 날 죽이고 싸워!! 죽여버리고 싶어!!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런 집에서 더 못살겠어, 엄마 왜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살아?? 차라리 이혼해 이혼하란 말이야!!" 그동안 내 맘속에 있던 것들을 모두 밖으로 내 뱉어 버린 순간이었다.

이후, 엄마는 내게 "그 동안 니가 엄마랑 아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라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 일이 있던 후에 부모님이 전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아빠의 큰소리만이 들렸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엄마도 할말은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옆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빠의 폭력성이 그나마 아주 조금 줄었다는 것이다.

시울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도 폭력적인 상황들에 있던 나는, 대학에 온 지금에서야 생각해 본다. 도대체 누가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인가? 어렸을 적부터, 남아들에게 "아유, 우리 장군, 고추좀 보자~" 라는 말들로 그들의 물건을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든 내놓아도 괜찮은 것으로 만든 이 사회의 남성중심의 사고가 그남들이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여자가 어디 다리를 벌리고 앉아??"라는 등의 말들로 늘 억압해 오던 여성들을 그 남들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녀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物)로 생각하는 이들을 재생산 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가족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시작으로 이루어진다. 부부 관계는 "일촌"으로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 안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 않다. 결혼과 동시에 집안에만 있게 만드는 이 사회는 그녀들이 늘 집에서 돈 벌어오는 남성들과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고 있다. 돈을 버는 남편과 집안일만 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어른과 아이"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나타나는 권력을 보며, 과연 우리의 가족은 한국 남성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족"이 바뀌어야 한다.

나는 나쁜 딸

난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물론 욕심 없는 사람 없겠나만은 난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만능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와서는 그래봐야 나만 괴롭다는 걸 알고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노력해왔다.

그렇게 욕심은 없어지고 있는데 더욱
욕심이었던 것은 나의 가족 안에서의 나.
나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가부장적인 인식
남아선호사상들에 의해 난 내가 여자라서
못하고 제한받아야 했던 것들에 대해
원통해 했고 너무나도 갑갑했다.

나의 부모님들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날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것에서 나와 어떤 동질감을
얻어내지 못했다.

우선 난 부모님이 외출하시면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하고 돌보는
과목은 바로 밥해주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난 싫었다. "니가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며 어린시절을 보낸 건 아니지만
난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엄마한테 따지자
... "니가 윗사람이니까 그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시집가서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헐.. 내가 아는 오빠를 가진 친구들도 자기가 알아서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데?? 그리고 난 내가 뭐가 다른 건지, 왜 여자는 그래야 하는 건지 별
설득력 없는 이유였다.

그렇게 따지고 따진 나의 결론은 '나쁜 딸이 되자'였다.

난 우선 나와 동생만 집에 있을 땐 밥을 같이 굶었다. 물론 수도 없이
혼났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만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같이 굶었는데.
우리 동생에겐 전적으로 나의 엄마 아빠의 잘 타고 난건지 가부장적
인식을 그대로 학습하였고 이미 보수적인 마초가 되어있었다. 몇 번 굶고
나서 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서는 "야 밥좀 차려!!" 할 턱이 없다.
나의 동생은 몇 번이고 화를 냈고 말로 싸워도 이득이 없는 난 그냥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동생은 동생대로 밥을 차려 혼자 먹었고 나도
그랬다. 내 밥은 내가 차려먹는다는 게 동생에게 익숙할 때쯤 난 제안을
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 맡는 것이다. 설거지를 할
건지 밥을 할 건지.. 동생은 자기 혼자 하던 걸 나누자는데 찬성했고 사실
설거지는 싫다고 밥만 차렸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꼭 설거지를 시켰다.
설거지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투쟁에 투쟁의 역사를
세워갈 때쯤 난 동네에서 성격 나쁘고 냉정한 피눈물 없는 딸이
되어버렸고 내 동생은?? 설거지도 하는 너무나도 착한 동생이 되어있었다.

근데 난 착한 딸이 되기 위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는 딸이 되기 싫었다.
뭐 별거 아닌 거 뭐.. 좀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다면 만약 전생이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중에, 나중에 남자로 태어나는 날이 있어서 그때
설거지와 청소를 내가 맡겠 할 것이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
여자가 착해서 청소를 하는 것과 남자가 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자. 여자가 밥을 잘하면 내 일을 잘 아는 여자이고, 남자가 밥을
잘한다면 그 남자 진짜 착한 남자다. 무거운 거 잘 드는 남자는 그 남자
할일 잘 하는 거로 되는가? 그럼 여자가 전기공처럼 자유자재로 고친다면
?? 어르신들은 그런다. 여자가 드세다.

생각해보자. 여자가 밥을 잘하면 내 일을 잘 아는 여자이고, 남자가 밥을 잘한다면 그 남자 진짜 착한 남자다. 무거운 거 잘 드는 남자는 그 남자 할일 잘 하는 거로 되는가? 그럼 여자가 전기공처럼 자유자재로 고친다면?? 어르신들은 그런다. 여자가 드세다.

내가 내 동생을 내 부모님을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좋아한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욕 한번 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작게는 정, 크게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외면하기엔 작아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가족의 이러한 생각들만은 싫어한다.

내 동생과의 에피소드는 한 두 개가 아니다. 나쁜 기억들도 많고...

내 동생은 지금도 마초다.

하지만 라면이나 밥을 나보다 훨씬 맛있게 하는 동생을 보며 난 계속 나쁜 딸일 것이다.



결혼 그거 꼭 해야 돼?

무명

내가 5살쯤에 우리집은 작은 동네 안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 옆집에는 쌀집, 맞은편에는 이발소가 있었다. 이발소와 쌀집에는 나랑 동갑내기 여자아이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 나는 매일같이 골목길에서 뛰어놀았고 가끔씩 결혼식 놀이를 하기도 했었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 근데 누구랑 결혼해? 너희 둘이랑 다 같이 결혼할 수는

없잖아??

?어쩌지??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 어린나이에 어떻게 일부일처제를 알고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결국 신부역할은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이긴 친구와 나는 팔짱을 끼고, 팼따따다?~ 팼따따다? 음악에 맞춰 결혼식을 진행했다. 예물받지는 이미 사랑은 다 먹어버린 사랑받지로 대신하고, 주례는 간단히 생략했다.

그런 줄만 알았다. 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하고, 취업한 후에는 결혼을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나는 5살 때 두 친구 중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방장을 못지며 고민해야만 했고, 그 고민은 내가 7살이 되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때까지 쭉 이어졌었다.

하지만 지금에 난 누구와 결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에게 결혼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것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사회화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나 타임머신이 있어서 다시 5살 그때로
돌아간다면...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면 난
이제 이렇게 대답할거다.

7결혼, 그거 꼭 해야 돼? 난 혼자서도 엄청 재미나게
놀 수 있는데?



단지 상상만으로 그쳐야한다

하릴 없이 화창한 5월이 지나가고 꽤나 더운 6월이 시작되었다.
눈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던지는 사촌 언니의

결혼식을 보다가 남몰래

그녀와 나의 결혼식을 아주 잠깐. 감히. 상상해 본다.
둘 다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건가? 탁 트인 야외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축하를 받고 싶다. 누가 먼저 입장을 해야 하나?
같이 입장하면 되지 뭐. 부케도 각각 하나씩 들면 되겠다. 결혼
서약을 하고, 축하 파티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는 건가? 아마 두
사람 다 일에 치여서 그런 건 못 갈 거 같은데? 아침밥도 같이 먹고
저녁밥도 같이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고, 정말 가족같이
.....재미있네, 이런 상상.....꿈같은 얘기는.

단지 상상만으로 그쳐야한다.

몇 달 전 뉴스에 꽤나 크게 다뤄진 게이 커플의 결혼식은 축하
하객보다는 어디선가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했고, 그래도 그들은
결혼식을 감행했다. 국내 제 1호 레즈비언 공개커플로 세상에
커밍아웃 해버릴까?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주변의 지인들도 난리가 나겠군.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면 더욱
가십거리가 되겠지?

단지 상상만으로 그쳐야한다.

젓가락질이 서투른 나는 종종 그녀에게 핀잔을 들곤 한다.
그래도 가볍게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film

그게 화근이었다.

"맞아. 나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우리 고모가 나한테 절대 한정식당에서 선보지 말래. 하하 웃기지? 내가 칼질은 좀 하니까 양식당가서 선 볼 거야."

".....아, 그래? 그래라. 결혼하려면 선 볼 땐 그래야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끝끝내 어색한 분위기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비록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녀지만 그녀와의 미래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

감히 그녀와의 결혼이라니.
단지 상상만으로 그쳐야한다.

그건 '너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그녀와 그녀'이기 때문이다.

쇼 윈도우에 진열된 웨딩드레스를 한참을 서서 바라본다.
또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했다.

당신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을 나는 눈물나게 꿈꾸고 있다.

★새로쓰기

다르게 말하기 - 만화
미디어비평 - 백만송이 장미
행사 다시보기 - 유월제
여성운동하기
현상수배
다르게 보기 - 사진 칼럼
10만원 여행기

고정칼럼

★ 다르게 말하기-만화



★ 미디어 비평

백만송이 장미

뽕꾸

드라마 애청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드라마! 똑바로 못해!?!

평소 아쉬웠던 부모님과의 시간보내기를 하느라 두분께서 애청하시는 드라마를 꼭 함께 본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나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부모님과 함께 봤던 드라마는 '백만송이 장미'인데 어느날 유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자마자 그녀는 '그래 어렵게 얻은 아이니까 이제부터 몸조심 해야 한다. 직장은 내일부터 그만두고.'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엄마 저거 말도 안댄다. 애 가졌다고 당장 직장을 그만두라는게 어딴노?'

우선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인용하겠다.

오늘날 재혼은 새로운 화두가 되었고 재혼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가부장적인 제도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제 폐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성이 다른 두 형제가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화합해 가는 과정이 중심 줄거리이다.

호주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한 가족의 조건은 혈연을 뛰어 넘어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시간과 사랑에 있음을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재혼한 부부, 백년해로를 꿈꾸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부부, 남편의 부재 속에 기다림으로 자식을 돌보고 지켜온 아내 등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가족을 모델로 삼아 바람직한 부부관계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 집안의 자녀들은 결혼과 우정으로 얽혀 있고 부모의 지난 과오로 고통을 겪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화해에 이르게 된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들 젊은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반쪽을 찾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의 결혼관, 가족관을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자 한다.

기획의도에서처럼 이 드라마는 두 이복형제(남자형제)를 둘러싼 가족들의 갈등과 화해를 이야기 한다. 나름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문제들을 시사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 눈엔 결혼광고쯤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이성연인에서 부부로 변모한다. '문제 있는'가정에서 자식의 결혼은 가정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결혼은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의 통과 의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성간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나 결혼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문제 있는'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을 더욱 강고하게 만든다.

민재(이복형제중 형)의 아내 유진은 낙태를 경험한 후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가족의 눈치를 살피며 임신하기 위해 약을 먹는다. 시어머니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녀는 입양을 조심스레 남편 민재와 의논한다. 후에 극적으로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유진.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기뻐한다. 유진과 민재의 사정을 통해 입양하는 가족까지 포용하려 하지만 결국 혈통을 중시하는 생물학적인 가족으로 기울고 만다.

이 드라마에서도 항상 여성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며느리가 늦잠을 잔 날에는 아침밥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핀잔을 듣거나, 따스한 배려의 말로 안도감을 느끼는 장면은 아주 흔한 장면이다. 남편은 직장에서 공적인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사적인 일을 담당하게 하는 성별분업은 드라마에서 미화된다.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애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그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성별분업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부유한 중산층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족 생계비와 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가부장의 소득만으로는 가족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 자녀의 학비를 장만하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여성은 주위에

많이 있다. '백만송이 장미'와 같은 드라마에서도 일조하고 있는 공/사분리의 통념은 여성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백만송이 장미'에서 보여지는 가정은 시청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잘못된 이미지만 주입시키고 있다. 부부중심가족과 성별분업이라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가족은 결국 '비정상'적인 가족을 생산하고 소외시킨다.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소외되는 가족이 없어지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엄연히 문화권력을 쥐고 있는 드라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행사 다시보기

유월제

신치

1988년 6월,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파쇼(fascio 이탈리아어: 독재적인 전체주의 경향·운동·지배 체제, 또는 그러한 인물 따위를 가리켜 이르는 말)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친 후, 분신하신故박래전 열사의 16주기 추모제, 유월제에 함께 했다.

학내의 여러 단위들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 안에서 여성주의적 고민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주의적 고민이란, 그 행사 안에서 여성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에 있어 내용이나 방법 등이 반여성주의적이지 않은가를 고려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행사 프로그램이 들어가진 않았나?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 사회적 현상안에 있는 여성을 얼마나 고려했느냐? 하는 것들 말이다.

여러 단위에서 유월제에 함께 하면서 유월제 기간동안 각 단위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양했다. 전쟁, 장애, 동성애, 등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번 유월제는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큰 틀을 잡기로 했다.

시작이라 어려운 것일까? 사실, 총여가 여성주의적 고민을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에, 많은 단위들에서 하는 말은 '우리 단위 안에서 여성주의적 고민을 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의 말들이었다.

여성주의적 고민은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간 날,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어디에서든 끈적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남자들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 광고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가 그 광고들 안에서 섹스어필하기 위한 요소들-항수나 술 광고에서 늘 섹시한 여성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 등-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고, 상품화 되는 곳엔 늘 여성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서 바로 여성주의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6주기 유월제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면서, 강연회, 영화제, 문화제를 했지만, 사실, 이것들을 준비하는 각 단위에서 그 실무적인 것 이외에 각 단위에서 여성주의적 고민을 풀어내서 좀더 알려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영화제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장애여성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했으면 했고, 정치를 이야기하며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과 그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성들 등 정치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좀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다. 하지만, 아직 숯실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무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내에서의 행사들과 모란공원 참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열사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 고민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다짐을 한다. 2004년, 이제는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 안에 잠자고 있는 여성주의적 고민을 깨워 앞으로의 많은 활동들에 있어 늘 여성주의적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여성운동하기

-세일

다들 30일... 아직까지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계절... 아랫배
사어와 허리로 아련히 전해지는 통증... 배를 움켜잡는다. 그리고 또 다른
통증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통증의 기억... 폭력의 경험

1999년 그해 봄... 누구보다도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한 '인간'
으로서 활발한 대학생활을 기대하였다. 그래서 대학입학과 동시에 여러
곳의 자치 활동 공간에 기웃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가입... 저
음부터 그 모임에 두 배 폭 당근 채 열심히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최
선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 모임에서는 같은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지
켜쳐야 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대학생활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
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들...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다.

남자 선배들의 의해 행해지는 폭력의 경험들... 이러한 경험은 나이 위계에
따라 여남 후배 모두에게 행해지지만 두 사람의 이후 반응은 너무나 다르
다. 남자 후배는 이를 경험하면서 굴욕감을 느끼지만 곧 생존전략으로 그
폭력을 용소 체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여자 후배는 그 경험을 가슴으로
안고 공공거리며 그것이 손목에 무거운 무게로 묶여 있는 채 질질 끌고
다니기만 한다. 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어려웠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의 몇몇 위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다. 그 경험의 흔적은 여전히 내 손에 묶
여 있었고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한동안 난 그것을 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질질 끌고만 다녔다. 그리고 갈증이 났다.

미당 속에서 언어로.....

그 만남이 우연인지 주체적인 의지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니
네' 라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나와 비슷한 여성들의 경험들을 만나
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놀라운 경험들이 내게 벌어졌는데... 내게 행
해진 폭력의 경험들이 미당 속에서 빠져나와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대학생활의 경험들.. 아니 그 이전의 학교생
활. 그리고 가족관계 및 주변 관계 맺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시각으
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만나고 나의 경험이 재
해석되는 순간 '여성주의'는 이미 내게 와 있었고 이것이 곧 만남의 시작
이었다. 이렇게 여성주의란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경험들이 다른 시각
으로 이야기되는 마술 같은 언어였다. 그런데 여성주의를 만나면 만날수
록 안타까움을 지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폭력의 경험으로부터 힘들
어 할 때 나의 경험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 해주며 큰 위로와 용기를 주
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들...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변해 있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 그녀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녀들의
힘들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며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깽아'라는 공간을 이어나간다.

깽아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의 시작

'깽아'는 어학우들이 자신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딜레마적인 상황들... 그 경험이라는 범위는 나의 경험과 조건만
이 중심에 있었다. 깽아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이 공존하지 못한 채 나
는 내 경험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뒤돌아 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다. 속으로 끊임없이 경험의 경중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깽아'의 활동은 서로의 경험을 여유 있게 공유하고 더 나아가 실천을 통한 다른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활동의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주의라는 단어로 나와 후배들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으며 활동 자체는 관념화되어 갔다. 나에게 '깽아'라는 공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해 다시금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함을 느낀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그리고 일의 해결은 의지보다는 오히려 상상력....'

오즘은 이러한 구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 본다. 하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 동안 지난 활동에서 나는 반대로 나 혼자만의 열 걸음으로 걸어왔으며 다양함을 인정하는 상상력보다 의지 하나로 힘든 생활을 버텨 왔으니 말이다..... --;



학내를 거닐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비의 날개 짓....그 날개 짓으로 다양한 색깔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

그 나비처럼 다양한 색깔을 발산하는 나. 깽아 그리고 여성주의를 다시금 꿈꾸면서 색깔을 한발 한발 옮겨 본다.....

P.S. 아참 마지막으로 내가 날개 짓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 줄 사람 없나요? 연락주세요^^ 저에게 아직 자매애의 바람이 아주 많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글썽 저두 당신의 날개 짓을 도울 수 있는 바람이 기꺼이 되어 드리겠어요 ㅎㅎ 안녕^^

★ 현상수배

여자가 길에서 담배 핀다고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린 남성을 수배합니다.

이대 전철역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담배를 피며 버스를 타러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끈을 잡아채서 머리가 풀어헤쳐졌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공포를 느끼며 뒤를 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고, 그 사람들은 들이었고 나는 혼자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사람들과 나의 물리적인 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내 머리끈을 돌려받고 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머리끈 주세요' 라는 저의 말에 한 아저씨는 어디 길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냐', '말세다' 등등의 말을 되풀이했고, 제가 머리끈을 뺏어오며 무슨 상관이나, 신경꺼라 라고 말하며 서로 언쟁이 붙자 그 아저씨의 손이 제 얼굴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자신의 성별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했는데 그 상대방이 시나리오대로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때리려는 시도를 2번이나 한 아저씨와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 욕을 퍼붓는 아저씨를 뒤로하고 화를 삭이며 가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들은 욕을 하며 버스정류장까지 저를 쫓아왔고 '너는 집에 아버지도 없냐' 등의 어이없는 시비를 계속 걸어대다가 제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면 뺨을 때렸습니다. 이어 경찰서에 가자며 잡는 저를 아저씨는 손을 놓으라며 우산으로도 때렸습니다.

물론 담배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는 담배 필 권리가 주어져있고, 여성은 마음대로 담배를 필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이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엄마가 되느냐 마느냐', 또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는 그 여성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을

'이후에 임신을 할 몸'으로 바라보고 '아이'를 들먹이며 여성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요즘 여성들의 흡연을 막는 세련되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어이없는 논리도 들어대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특권인 길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를 감히 여자가 누리려고 했다는 것에 화를 낸 그 아저씨.

결국 경찰서에 가셔도 끝까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여자가 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그 아저씨를,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려있는 그런 남성들을 공개수배합니다.

10만원 여행기

- 미영

상쾌한 아침!! 할머니 댁으로 가는 내 발걸음이 가볍다.

어젯밤 할머니와 떠날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는 내 모습은 꼭 어렸을 적 소풍가기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았다.

할머니 댁에 들어서는 순간 꽃분홍색 계량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역시 오랜만에 떠나는 이 여행을 얼마나 설레어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산으로 들로 아름다운 꽃들도 구경하고 개울가에 발도 담그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며 그동안 못 다한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고려해 차를 가지고 팔당댐으로 드라이브를 하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간단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출발했다.

사실 나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너무나 조출한 여행이지만 할머니께서 이 조출한 여행에 한껏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우리들의 10만원 女行 코스는 이러했다.

시원하게 풀린 팔당댐을 달리며 신나는 뽕짝메들리를 들었고, 카톨릭 성지라는 '천진암'도 둘러보고 할머니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회를 먹으며 너무나 좋은 경치에 사진도 찍으며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할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맙다고.. 미영이 댁에 이런 여행도 해본다고...

할머니..

'할머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나에게 가슴 절이고 커다란 무언가를 빚진 느낌을 들게 하는 나에게 있어 가장 기분 좋기도 하고 가장 슬프기도 한 모순된 단어이다.

할머니는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분,
 날 가장 많이 이해해 주고 아낌없는 사랑해주시는 분,
 사랑이란 것이 어떤 건지 얼마나 아깝도 아닌 할머니를 통해 알았고
 부엌에서 물 트는 소리만 들려도
 성하지도 않은 다리로 뛰쳐나와 말리시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뿜는 것조차 안쓰러워하시는 분,
 가끔 전화를 드려
 '할머니, 혼자 있어?' 라는 내 질문에
 "텔레비에 사람 많지 않나"는 유머를 날리시는 우리 할머니
 그 한마디로 내 가슴을 정말 절이게 꿈 하시는 분,
 정말로 정말로 날 아낀다는 느낌, 날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들게 해주신 우리 할머니
 이런 느낌..
 할머니가 세상에 없으면 나도 없을 꺼 같은 느낌

너무나 큰 빛을 지고 있는 나에게 작지만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
 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



www.dor-net.co.kr

지금 빨리 오세요!
 베르넷 크레딧

문대출 2-2051-2001

최고 500만원 까지

●보증 ●신인자 ●현금 ●수수료

이 광고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신지..

대출광고에 등장하는 여성. 그 여성이 나타내는 이미지,
 그리고 한마디 "지금 빨리 오세요!"
 대출광고에 이런 모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고 당황한다면
 역시 환경적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는 사회.

이런 곳에서 여성으로 살기 참 힘들다.

피곤해..

신치

두번째 매체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은 생각을 했음
좋겠어요~~

냥이

조금만더있었으면
가슴을해부한다고달려돌지도몰라
그래도점찍찌않음은끝내고싶지않음

재영

다른사람의 시를 나의 노래로 풀어내기
행복해요

시울

이제 잠재되어있던 당신의 분노를 분출시킬 차례예요
이 글을 보고 동감할 당신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요

리라

... 아직두 힘들고 어렵기만 하네 --

빵꾸

역시나 내공뽀뿌에 시달리다니...
흑흑흑

film

뜨거운 시선이 차갑게 만들어



이번 주말엔 꼭 엄마랑 영화보러 갈테야

JANETZ

부족한 글이라 민망한 마음과
매체에 쓴 첫 글이라 설레는 마음이 교차되는
유월 한가운데 저녁에

꼬마

백만번말해도부족한걸요
사랑해요

무명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은 더 밝게
빛난데요 o(---o) 밤아 더 어두워져 봐라~
난 더 빛날테다(^.^)V

뒷이야기~★